고흥군, 상수도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안전한 물공급 위해 내달 10일까지 실시

14개소 대상… "위험요인 선제적 해소"

고흥군은 오는 7월 10일까지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시설관리 주체,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사회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진단하는 예방활동이다.

군은 상수도 분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 자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6월 10일부터 한 달 간 취 · 정수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은 취 · 정수장 14개소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취 · 정수장 상류 오염물질 발생 유무와 시설물 기초 지반, 사면, 토사붕괴 유무 등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진단 방법에 따라 점검하게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고, 보수 ·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추가로 정밀안전진단 후 결과에 따라 보수 · 보강을 추진하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보고 듣고 느끼는 어린이 체험교육"

순천시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

순천시가 전남도 최초로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어린이건강체험관' 은 어린이들이 건강한 생활습관형성을 위해 마련돼 4~7세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건강체험관은 주 2회(월, 화) 10인 이상 전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꼬마요리사 요리교실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을 우선으로 요리교실과 건강체험관을 함께 체험 할 수 있다.

주요 건강콘텐츠로는 △비만 △금연 △절주 △손 씻기 교육 △올바른 칫솔질 교육 △운동 △영양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 체험활동으로 진행 된다.

체험관 문의는 연향건강생활센터(061-749-426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양시, 재난관리평가 '전국 최우수기관'…6년 연속 선정

광양시는 2020년도('19년 실적) 재난관리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성과는 민선7기의 시정방향인 안전 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광양시에 큰 쾌거이며, 코로나19 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능력이 중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광양시가 전국 최고의 재난관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05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라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고 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진단 ·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32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부처 28, 지자체 243, 공공기관 54)을 대상으로 공통 ·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재난 대응능력 5단계 31개 지표로 2019년 재난관리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시는 감염병 대비 역학조사 · 방역인력 확보, 폭염피해 최소화, 재해예경보 시설 전수 교체, 재해예방사업 적기 추진 등 각종 재난 대비 시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향상시킨 점을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교부받을 특교세는 재해위험 예방 사업에 투입하여 재난예방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시민들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책임행정, 명품행정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최근 여수시 돌산읍사무소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본계획(안)' 에 대한 '찾아가는 시민 설명회' 가 열리고 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본계획

오늘까지 '찾아가는 시민 설명회'

여수시는 지난 9일부터 화정면을 시작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본계획(안)에 대한 '찾아가는 시민 설명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와 시민설명회를 통해 여수섬박람회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여수시는, 섬 주민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도서지역으로 직접 찾아 나섰다.

특히 주행사장이 위치한 돌산읍과 부행사장으로 계획 중인 금오도와 개도가 속한 남면과 화정면은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섬 주민을 위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충분히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달 19일 삼산면을 끝으로 주요 도서지역 4곳의 시민 설명회를 마무리하고, 오는 24일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개최한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광양시, 정책실명

공개과제 42건 확정

시홈페이지에 공개

광양시는 시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실명 공개과제 42건을 선정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시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공사(사업) ▲5천만 원 이상 연구 및 용역사업 ▲다수 시민과 관련된 중요 자치법규 제 · 개정 ▲국정과제 ▲그 밖에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중심으로 공개과제를 발굴하고 광양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확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는 ▲중동 행정타운 주차타워 건설공사 ▲주거형 마을회관 건립사업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 증축공사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등 총 42건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보성 청년 지원정책 다(茶 · 多)문화촌 조성사업 시행

홈패션 배움 캠퍼스 운영… 티블렌더 육성 9월부터 시작

보성군은 18일부터 '보성 다(茶, 多)문화촌 조성사업' 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보성군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미선)에 '다(多)문화 배움 캠퍼스' 를 열고 관내 청년 23명(20세~49세)을 모집해 제단과 제봉 등 홈패션 기술을 교육한다. 교육은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진행된다.

'보성 다(茶, 多) 문화촌 조성사업' 은 녹차수도 보성이라는 특색에 맞춰 전국 청년을 전문 티블렌더로 육성하고, 다문화 배움 캠퍼스 교육을 실시해 결혼이민여성을 비롯한 청년들이 홈패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사업이다.

티 블렌딩 전문교육은 오는 9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교육을 수료한 청년은 리모델링한 청춘다(茶 · 多) 방을 직접 운영해 보면서 창업을 위한 실무 감각을 익히는 실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지역 청년들의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청년센터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청년센터 내에 보성청년 유튜브 교육 · 제작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 밴드 연습실을 운영해 보성 청년의 소통과 협업을 도모하고, 청년문화 공감대를 형성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보성 =김덕순 기자